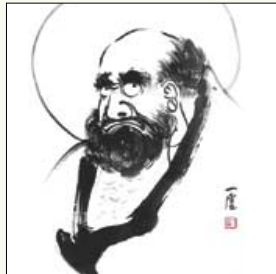


민수가 건강해지고 있어요

“6차까지 약물치료를 진행하다보니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본지가 달마도 판매 등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 민수(4)의 아버지 김형찬씨가 오랜만에 웃음 띤 목소리로 민수의 근황을 전해왔다. 11월 4일 현재 민수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수는 이미 어른도 견디기 힘들다는 약물치료를 5차까지 받은 바 있다. 암세포가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약물은 투여됐고, 자가 생성되어야 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 애통을 먹었다.
그러나 이번 6차 약물치료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고 다른 어느 때보다 민수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 주위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김형찬씨는 “민수가 약물치료를 잘 견디고 있다”고 전하며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동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cm) 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현대불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능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y.buddhapia.com/homepy/helpminsu

무의탁 어르신 빨래걱정 끝!

무료세탁·배달 서비스 제공하는 복지시설

서울 성동구 왕십리 골목 귀퉁이에는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빛바랜 노란색 간판에 쓰여 있는 이름이 ‘무료빨래세탁·배달 사업장(시설장 회정, 이하 무료빨래세탁소)’이다. 진각종 밀각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탁기 소리로 진동한다.
1999년 2월 문을 열어 지금까지 성동구 21개동 어르신들의 빨래걱정을 수거해 온 시설인 무료빨래세탁소. 즐기차게 사용해서 그런지 낮은 환자가 곳곳에 보인다. 그러나 세탁기만은 아직도 건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의 세탁기들은 성동구 무의탁 어르신들의 청결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세탁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6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관리자 배외자(51)보살의 힘이 크다. 배 보살은 “중풍에 걸린 어르신들까지 우리 세탁소에 빨래감을 맡기려고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무료빨래세탁소에 흘러들어오는 빨래들은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내놓는 속옷, 겹옷, 이부자리다. 그렇다보니 웅변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다. 덕분에 지난 2월부

터 무료빨래세탁소에서 상근 근로하고 있는 이봉자(55)씨가 고생이다.
“그래도 이런 시설이 있어서 편만 다행이라 생각해요. 어려운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세탁기는 고사하고 빨래를 널어 말릴 공간도 없거든요. 이런 시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불교계에는 무료빨래세탁소 이외에도 몇 군데 지역복지관에서 세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빨래방을 운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형 세탁기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 사업장을 꾸러가기 쉽지 않은 것이다.
세탁기가 없어도 세탁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 노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의 경우 월 1회 인근 구룡마을 저소득 가정의 세탁물을 수거해 결연을 맺고 있는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탁을



진각종 밀각복지회에서 서울 성동구 무의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빨래세탁·배달 사업장’의 모습.

하고 있다. 대형 세탁기를 구비한 복지관과의 연대 사업을 통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는 좋은 예다.
한편 불교계 각 복지관에서는 세탁서비스는 하지 않더라도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를 통해 설거지, 빨래 등을 도와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후원이 필요하다면 지역 복지관의 문부터 두드려보는 것이 좋다.
김강진 기자 kangjin@buddhapia.com

복지관	시행 횟수	연락처
서울 광진종합사회복지관	수시접수	(02)466-6242
서울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월 1회	(02)571-2988
서울 무료빨래세탁·배달 사업장	월-금	(02)298-0994
서울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수시	(02)817-8052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 1회	(02)929-7950
서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수시접수	(02)3494-4755
수원 서호노인복지회	수시	(031)291-0911
경북 문경모정종합사회복지관	수시	(054)555-0108
경산 백현종합사회복지관	수시	(053)811-1347-8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지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유류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을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중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세요.



“사요, 빨리 사세요.” 10월 28일 옥수복지관에서 진행된 바자회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정수암 보살들. 이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복지관 급식봉사도 하고 있다.

옥수복지관 봉사자 정수암 보살들

내실있는 바자회 소문 났어요

“옷 가격 좀 보세요, 튼튼한 스키 바지가 만원이에요.”
“모자가 정말 싸요. 모두 다 새 물건이랍니다.”
10월 28일 아침 9시 개장한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 바자회. 일대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몰려들었다. 이른 시간이지만 그간 옥수복지관 바자회가 내실 있기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볼 수 있다. 수시로 진행되는 바자회, 겨울철 김장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다. 주 1-2회, 개인의 형편이 닿는 대로 복지관 식당에 나와 어르신들 급식과 도시락을 챙기는 것도 정수암 보살들이 하는 일이다.

3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채세희(49) 보살은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왔을 뿐”이라며 겸연쩍어 한다.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스스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힘든 줄 잘 모르겠다”며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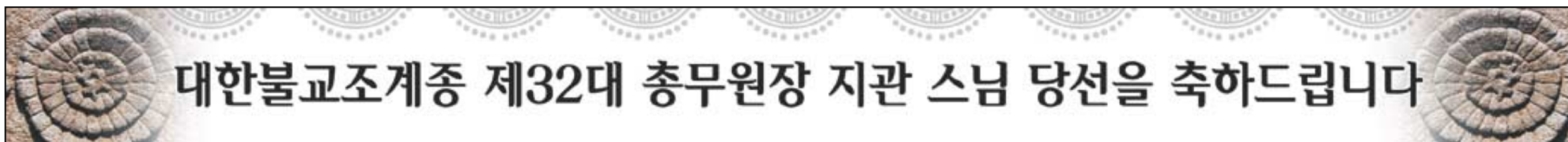
윤승희(51) 보살도 “관장 스님께서 어르신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내가 봉사하는 것 보다 배우는 게 더 많다”고 말한다. 윤보살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환한 미소로 표출된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봉사가 즐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수암 보살들은 스스로 봉사의 즐거움을 찾았기에 항상 봉사해도 항상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것이다.

겨울옷 후원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옥수복지관 정수암 보살들은 항상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복지관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

속해서 급식물품과 쌀, 김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수암 보살들은 “이제 겨울이라 어려운 분들에게 드릴 옷가지도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불자들의 나눔 손길을 호소했다. (02)2282-1100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안국선원 전경

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 일동